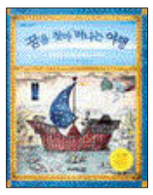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돌아온 고양이='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1957년 '현대문학' 10월호에 발표했던 '영주와 고양이'를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다시 고쳐 쓴 작품이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선주 남매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밝고 고운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커가는 이야기가 감동적이다. 〈작은 책방·9천원〉

▲사씨남정기='구운몽'의 작가 서포 김만중이 숙종 15년 인현왕후가 폐출된 것을 반대한 죄로 귀양을 떠난 후 유배지에서 쓴 고전소설이다. 부부, 처첩간의 갈등을 그린 여성소설이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곁들여져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창비·9천원〉

▲에밀리의 토끼인형=소중한 친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그림책. 꼬질꼬질한 토끼인형 스탠리를 친구처럼 여기는 에밀리는 여황제 글로리아나 3세가 더 멋진 장난감을 주겠다며 스탠리를 빼앗으려고 하자 고민에 빠진다. 〈웅진주니어·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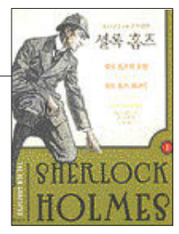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 피터 시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일생을 독창적인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 미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더 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주니어 김영사·9천원〉

▲재미있는 문화이야기='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 시리즈. 인터넷, 만화, 클래식, 표절, 안티문화, 비엔날레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문화에 대한 상식이 수록돼 있다.
〈가나출판사·8천500원〉

1천여개 주석으로 본 '셜록 홈즈 완전정복'

셜로키언을 위한… 클링거 편저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에서 복잡한 사건을 착착 풀어가는 포와르와 미스 마플은 꽤나 알려진 탐정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유명한 탐정은 셜록 홈즈가 아닐까.

영국 작가 아더 코난 도일이 1891년 작품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내보낸 셜록 홈즈는 오랜 세월 동안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때론 '실존 인물'인듯한 착각 마저 일으키게 한다. 특히 홈즈의 출생년월일, 친구 왓슨 박사가 몇번 결혼했는지 등 홈즈를 너무나 좋아해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연구하는 일명 '셜로키언'(최근에는 홈즈의 팬으로 의미가 확장됐다)들에게 홈즈는 엄연한 역사 속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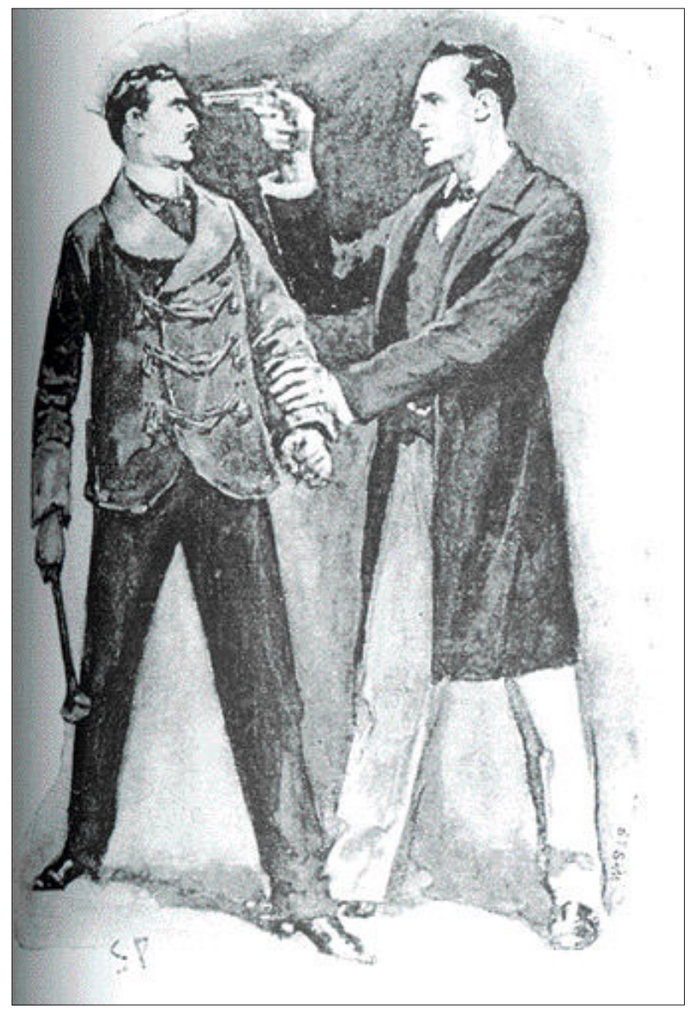
최근 발간된 '셜로키언을 위한 주석 달린 셜록홈즈 1'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셜록 권위자로 꼽히는 레슬리 S 클링거가 서문과 주석을 달고 편집한 책이다.

얼룩 띠·마지막 문제 등
코난 도일 작품 24편 실려
시드니 패짓 등 삽화도 볼거리

'주석 달린 셜록홈즈 1'에는 독극물을 사용하는 악당들을 그린 '얼룩 띠', 숙적 모리아티 교수와 라이헨바흐 폭포에서 벌이는 격투를 담은 '마지막 문제', 홈즈의 첫 사건인 '글로리아스콧호', 사랑과 협박의 이야기인 '보헤미아 왕실 스캔들' 등 코난 도일의 작품 24편이 실려 있다. '돌아온 셜록 홈즈' '셜록 홈즈의 사건집' '바스커빌씨네 사냥개' 등이 실린 2권과 3권은 2008년까지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주석은 무려 1천여개. '얼룩띠'에 나오는 알수 없는 뱀의 정체, 라이헨바흐 폭포에서의 홈즈의 '죽음'에 대한 해석 등 작품과 관련된 세세한 주석은 소설 자체가 주는 재미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특히 왕관 등에 박힌 보석의 배열, 19세기 권총의 기술 수준 등 이야기가 전개되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시대상황과 역사적 배경, 사회·문화사적 요소까지 설명하는 세세한 주석은 때론 감탄을 자아낸다. 시드니 패짓 등 유명한 작가가 그린 수백점의 삽화도 또 다른 볼거리.



셜록 홈즈가 범인을 총으로 제압하는 장면을 그린 시드니 패짓의 삽화.

그밖에 홈스와 그의 친구 왓슨 박사, 아서 코단 도일의 전기와 전설적인 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80여페이지에 이르는 '셜록홈즈의 세계'도 실려 있다.

1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셜록홈즈의 신나는 활약상에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던 독자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너무 세세한 주석이 거추장스럽다면 관심있는 부분만 뽑아서 읽으면 된다.

'주석 달린 고전 시리즈'로 이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나라의 앨리스' 등을 담은 '앨리스'를 펴낸 바 있는 출판사 '북폴리오'는 앞으로 '오즈의 마법사' '빨강머리 앤' '허클베리 핀'도 출간할 예정이다. 〈북폴리오·3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순신은 노량해전서 전사하지 않았다

평역 이순신 자서전 남천우 지음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자서전'은 아무래도 낯설다. 그런 제목으로는 출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평역 이순신 자서전'은 몇 가지 단서를 달아야 가능한 책이다. 저자인 남천우 전 서울대 교수는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고 16년을 더 살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이충무공 전서'의 전기문이 사실은 이순신 본인의 글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04년 '이순신은 전사하지 않았다'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전기를 이순신이 직접 쓴 증거로 저자는 조카가 기억하기에는 너무 자세히 어린 시절 일화와 사건들이 기록돼 있다는 점을 든다. 이 책은 '이충무공 전서'의 전기문을 바탕으로 저자의 설명이 첨가돼 있다. 책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전, 옥에서 석방될 때, 명량해전 승리, 죽을 때까지를 다루고 있다.〈미다스북스·1만8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르·주제별로 짚어 본 러시아 미술

눈과 피의 나라… 이주헌 지음

러시아는 우리나라 인접국이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왠지 멀게 느껴지는 나라다. 하지만 기업들의 도전 창구로, 한류의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눈과 피의 나라 러시아미술'은 문학이나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러시아 미술을 소개한 책이다. 미술평론가 이주헌씨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도시의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을 순례지로 삼아 러시아 미술을 짚어본다.

트레티야코프 미술관과 러시아 미술관은 러시아 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세계적인 컬렉션이다. 저자는 장르와 주제에 따라 주요 작품을 설명한다. 서유럽 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에르미타슈 박물관과 푸슈킨 미술관은 전시관으로 묶었다.

〈학고재·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캠벨 '신의 가면3-서양신화'

캠벨은 '신의 가면 3 - 서양 신화'를 니체의 말을 빌려 마무리한다. 그가 인용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한 구절을 옮기면 이렇다. "나의 사랑과 희망으로 그대에게 간청하나니, 그대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내치지 말라."

물론 철학자 니체가 염두에 두었던 우리 영혼 속의 영웅은 '초인'(Ubermensch)이었을 테지만, 신화학자인 캠벨에게는 그 영웅이 아마도 신화였을 것이다. 현대인에게 만약 아직도 어떤 영웅적인 풍모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신화시대의 유전자들이다.

가령 어떠한 낙원도 더는 상상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시대에 "사자는 죽이지 않고, 늑대는 양을 채가지 않고, ……늙은 여자는 '나는 늙은 여자이다'라고 하지 않으며, 늙은 남자는 '나는 늙은 남자이다'라고 하지 않는" 천국의 섬 '딜문'을 신화가 아니고서야 어찌 꿈꿔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우주의 주관자는 바다 위에서 끝없는 뱀 아난타 위에 누워서 영원한 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이 우주였다"라는 문장처럼 장엄하고도 시적인 세계에 대한 기억을 신화가 아니라면 어디서 되살려 낼

신화는 우리를 꿈꾸게 한다

수 있을 것인가?

더러 신화의 허황됨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 바 아니다. 신화란 잘못 쓰이면 현실의 남루함으로부터 쉬운 도피를 허용하는 망상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치부하기도 힘든 것이, 나는 신화들로부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적절한 사유의 실마리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캠벨의 책을 읽고 나서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는 힘들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포악한 남신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여신들을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캠벨의 책을 읽고 나서 종교, 특히 야훼와 알라(오늘날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이 사실 이 두 신들 간의 전쟁이 아닌가) 같은 가부장 신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기는 힘들다.

질투 많고 고집스런 그들 남신들이 어떻게 풍요롭고 온화하던 여신들의 세계를 짓밟고 신화적 비방을 일삼아 왔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까뮈의 소설 속 주인공처럼 권태롭고 무기력한 나날들이 계속된다 싶을 때 종종 꺼내 읽거니와, 캠벨의 '신의 가면'(전 4권·까치 펴냄)은 초라하고 비루하기 그지없는 우리도 한 때 영웅이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들의 세계 또한 위대한 꿈들로 가득 차 있던 시절이 분명 있었으며, 사실은 그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아직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신화는 우리를 꿈꾸게 한다.

김 형 중
〈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